

제27회 한·일 원자력산업 세미나 개최
261명 참가, 논문 24편 발표



한국원산과 일본원산이 매년 양국에서 번갈아가며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일 원자력산업 세미나가 금년도에 제27회째를 맞이하여 한국 측 원자력 관계자 238명과 일본 측 관계자 23명 등 총 261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24일~25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서울 리베라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한·일 원자력산업 세미나는 기술 세션으로 「원전 운영 및 유지 보수」,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선정 기술」, 「원자력 신기술」, 「원전 계속 운전」등 4개 분야와 패널 토론 세션으로 「기후변화협약과 원자력의 역할」의 1개 분야, 그리고 전문가 토론 세션으로 「원자력과 국민 이해」의 1

개 분야 등 총 6개 분야로 구성되어 한·일 양국에서 각각 12편씩 총 2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세미나 첫 날인 10월 24일 오전에 열린 개회 세션에서는 한·일 양측 대표의 개회 인사가 있었는데, 한국 측에서는 한준호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회장(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일본 측에서는 대표단장인 히구치 카츠히코 규슈전력(주) 원자력본부장이 양국을 대표하여 인사말을 하였다.

개회 인사 후에는 민병주 한국원자력연구소 연수원장이 「원자력산업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였고, 이어서 한·일 양측 인사의 기조 강연이 있었다. 한국 측에서는 이중재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이 「한국 원자력산업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일본 측에서는 대표단장인 히구치 카츠히코씨가 「일본 원자력산업의 현황」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개회 세션 후 진행된 제1세션에서는 「원전 운영 및 유지 보수」를 주제로 한·일 양국에서 각각 2편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날 오후에 개최된 제2세션에서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선정 기술」이라는 주제로 한·일 양국에서 각각 2편씩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이어서 「기후변화협약과 원자력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패널 토론 세션이 열렸는데, 한·일 양국에서 각각 2편씩의 주제 발표 후 패널리스트와 강연자의 토론이 있었다.

10월 25일 오전에 개최된 제3세션에서는 「원자력 신기술」이라는 주제로 한·일 양국에서 각각 2편씩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이어서 제4세션에서는 「원전 계속 운전」이라는 주제로 한·일 양국에서 각각 2편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날 오후에는 「원자력과 국민 이해」라는 주제로 전문가 토론이 있었는데, 한·일 양국에서 각각 2편씩의 논문 발표 후 관련 전문가들 간의 열띤 토론이 있었다. 이어서 열린 폐회 세션에서는 한국 측에서 방국진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상근부회장이, 일본 측에서는 대표단장인 히구치 카츠히코씨가 폐회 인사를 하였다.

한편 세미나 종료 후 일본대표단은 10월 26일~28일까지 한국원자력연구소, 한전원자력연료(주), 고리원자력발전소, 창원 두산중공업(주) 등을 시찰하였다. 차기 한·일 원자력산업세미나는 2006년 10월경 일본 도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제6회 원자력산업회의의 회원사 원자력 산업 시찰

한국원자력산업회의는 한국원산 회원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제6회 원자력 산업 시찰을 10월 27일 ~ 28일 양일간 실시하였다. 21개 회원사에서 28명이 참가한 이번 시찰은 한수원(주) 울진원자력본부를 방문하여 울진 5호기 내부와 방사성 폐기물 저장고, 홍보관, 전망대 등을 둘러보고 인근의 삼척 환선굴을 탐방하는 등의 행사로 진행되었다.

한국원산 사무국 추계 체련대회



한국원산 사무국은 추계 체련대회의 일환으로 11월 4일 방국진 상근 부회장을 비롯, 전 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청계산 등반 대회를 가졌다. 이날 등반은 청계산 자락의 하나인 옛골을 시발점으로 봉오재-목배등 능선-이수봉-약호샘골-옛골간 코스를 택하여 진행되었는데, 가을의 정취와 함께 직원들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뜻있는 시간이 되었다.

한국원산 사무국 지리산 등반



한국원산 사무국은 11월 11일 ~ 12일, 직원간 단합과 체력 증진을 목적으로 한 지리산 등반 행사를 가졌다. 방국진 상근 부회장, 서중석 사무총장을 비롯한 등반 희망자 10명이 참가한 이번 산행은 전남 구례까지의 야간 열차 이동 후 새벽부터 지리산 성삼재 휴게소-코재-노고단 대피소-노고단-돼지령-임결령-피아골 대피소-피아골로 이어지는, 총7시간 산행의 무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